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번 목요일(9월6일) 저녁 8시 교척개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매일성경 9/10월호 나왔습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9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오영숙 집사 (시 125)

이번 주 친교: 김현정 권사, 오영숙 집사

다음 주 친교: 이영순 권사, 이영희 권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박인주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Mark 1:35-39** -----인도자
 설교(Sermon)----- **“In a Solitary Place”** ----- Edwin Kim 전도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1장 (통1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67장 (통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 45:1-2, 6-11, 17----- 안상민 집사
 찬양(Choir) ----- “맘의 평화 주옵소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살전(1 Thessalonians) 2:17-3:8**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325장 (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Acts) 18:1-11)

본문은 바울의 이차선교여행 중 고린도에서 일년 육개월을 머물며 사역하게 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도시에서 일년 넘게 머물며 사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스의 중심 도시 고린도를 거점으로 넓은 지역을 전도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해서 오래 머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나로 건너와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 자체가 녹록치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베뢰아까지 쫓아와 바울을 죽이려 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위험을 피해 홀로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서도 일행이 마게도나 소식을 갖고 도착하기까지 근심 중에 혼자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역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나와 함께 한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일년 육개월이나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사방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고린도와 다른 도시들에서 바울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코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었으면 오히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진 영광이었습니. 그 십자가는 혼자 진 명예가 아니고 주님의 명예였기에 쉽고 가벼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결코 쉽고 가볍지 않았듯이, 고린도에 이후 선교지에서 바울이 진 사역의 명예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과 사역의 명예도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 때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뿐 아니라 소돔 같은 거리에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은 힘들고 외로울지언정 주님과 멀리 떨어진 허망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며 같이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용기와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종교와 상업과 정치 중심지 고린도 시민들은 자기 도시와 생활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더 고상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스키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듣고 믿어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 그러나 믿고 난 후에도 이전의 삶의 방식과 방탕한 도시 환경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도 없는 것 같고, 들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십니다. 얼마나 회개와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고 주님과 자기만 남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강한 의지로 사역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상하고 주변에 상처가 됩니다. 자기 힘이 다할 때는 무너집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와 섬기는 이가 자기만 남았다고 절망해 죽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자기만은 주님을 지키겠노라고 했다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땅위에 가장 큰 사람이있어도, 불평하는 백성 앞에서 진노했다가 “망령된 말”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칠천명이 있다고(왕상 19:18), 주님의 기도로 회복된 후에는 형제들을 도와주라고(눅 22:32),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고(민 20:12)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명예를 맨, 우리의 동역자 - 함께 명예를 맨 사람 - 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세우십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줄어들었거나, 계속되는 고난에 강박해지거나, 교만으로 눈이 높아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